

지역 매 아리

완주군, 관내 일회용품 사용업소 일제 단속 실시

완주군이 관내 일회용품 사용업소 일제 단속에 나선다.

28일 완주군에 따르면 기존에는 면적이 165㎡이상인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에서 유상판매가 허용됐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이들 업소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전면 사용이 금지됐다.

제도기간에 이어 다음 달부터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업소는 사업장규모, 위반횟수에 따라 최저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사이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 단속대상은 165㎡이상의 대형마트와 슈퍼마켓으로 일회용 비닐봉투 사용 여부 뿐만 아니라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컵 제공여부 등도 함께 점검한다. 현재 완주군민 1인당 연간 약 400장의 비닐봉투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4천만장의 비닐봉투가 사용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완주군은 소비자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비닐봉투 대신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리터 종량제 봉투를 제작해 배포한다는 계획이다.

강신영 환경과장은 "일회용품 사용규제로 연간 수천만장의 비닐봉투와 플라스틱컵 사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2018회계연도 예산

결산검사 본격 착수

김제시는 2018회계연도 예산에 대하여 결산서 작성을 마치고 결산검사 준비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결산은 예산과정의 최종 단계로 2018 회계연도의 모든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는 행위이며, 세입예산 징수·수납, 세출예산 지출 등 예산의 집행내용을 기록하는 예산회계 결산과 발생주의 회계원리에 따라 자산·부채, 수익·비용 등을 기록 보고하는 재무회계 결산으로 이원화 되어 있다.

김제시의 2018회계연도 결산서는 일반회계, 공기업특별회계(2), 기타특별회계(5), 기금(12)에 대하여 세입세출 결산, 기금 결산, 재무제표, 성과 보고서 등 본 결산서와 결산서 첨부 서류 22종으로 작성되었다.

작성된 결산서는 예산집행의 적법성, 공정성, 능률성, 합리성 등에 주안을 두고 오는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20 일간 의회에서 선임한 김제시의회 의원 김주택 대표위원의 2명의 결산검사 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결과 위원들의 의견을 첨부하여 오는 5. 31일까지 의회에 승인(안)을 제출하여 6 월중에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에서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완주군, 딸기메카로 부상

원료생산시설 설치 공모 선정

우량모 생산 보급체계 구축

완주군이 딸기 원료생산시설 설치 공모사업에 선정돼 딸기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완주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종자산업기반구축 공모사업에 선정돼 딸기 우량모 생산 보급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28일 밝혔다.

딸기 무병 우량모 생산 보급을 위한 첫걸음으로 조직배양을 통해 생산된 우량모는 딸기 육묘산업 안정화 및 생산액 증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동안 딸기농가들은 도내 자체 딸기원료생산 시설이 없어 경남, 충남, 전남 등 외지에서 모를 구입하여 사용해왔다.

그러나 농가들이 구입해서 심고 있는 대부분의 모종은 여러해 동안 증식 사용돼 병리적·생리적으로 퇴화, 병해충 감염과 수량감소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완주군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연간 5~6만주 정도의 모를 농가에 공급해 왔으나 그 양이 한정돼 농가들이 필요한 양을 공급하지 못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완주군은 6억원의 사업비로 2160㎡ 규모로 양액배배시설, 무인방제, 복합환경제어, 저온저장고 등을 설치해 안정적인 생산과 효율적인 분양을 꾀할 계획

이다. 이 시설이 준공되면 농업기술원과 사전 협의를 통해 원원묘를 공급받아 원묘를 증식하고, 대량 증식된 원묘는 완주군뿐만 아니라 전북 13개 시군 거점농가를 통해 확대 생산되게 된다.

또한, 원묘공급의 품질보증을 위해 매번 DNA분석을 통한 품종확인 2차례의 포장검사를 실시하고 일부 딸기묘를 정식 이형주 등 확인과 현장컨설팅을 주기적으로 추진해 원묘 공급이후에도 안정적으로 확대생산 되도록 사후관리 할 계획이다.

이규진 완주군농업기술센터 팀장은 "종자는 농사의 성과를 가름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딸기농사 역시 90% 이상이 딸기묘가 좌우하므로 우량모를 농가가 쉽게 구입해 안정적으로 농사를 짓도록 딸기원료공급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상황 점검 보고회 개최

전대식 부시장 주재

중간보고 및 현안사항 논의

3월 27일 김제시는 27일 오후 2시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전대식 부시장 주재로 해당 부서장 등 13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석 안전재난과장이 보고자로 나서 2019년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사항을 총괄보고하고 현안사항을 함께 논의하였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부서별 추진사항 보고와 함께 점검 결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재까지의 점검실적 등을 바탕으로 추진을 독려하였으며 실명제 체크리스트 작성 및 관리 등 행정안전부의 당부사항도 전달했다.

전대식 부시장은 작년 11월 발생했



김제시는 27일 시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2019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상황 점검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던 서울시 종로구 화재사건을 언급하며 "국가안전대진단이 형식적 점검에 그치지 않고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담당 공무원은 물론 각 부서장이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임해 줄 것"을 당부하며 "민관합동 점검대상인 위험시설은 반드시 민간

전문가와 함께 꼼꼼하게 점검해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한편, 김제시는 3월 26일 기준 총 270개 점검 대상시설 중 81%인 219개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고 4월 19일까지 100%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모악산축제 상생평화 선도하는 문화축제"

박준배 김제시장, 확대간부회의서

김제시(시장 박준배)는 28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국소실장 및 부서장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주요현안 업무를 점검했다. 이날 박준배 시장은 "제12회 김제모악산축제가 상생평화를 선

도하는 문화축제로서 손색이 없도록 관련부서 간 유기적으로 공유하고 맡은 바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주시 바란다"며 성공적인 축제 준비에 만전을 당부했다.

또한, 부서별 현안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한 후 주요사업 국비확보와 신규사업 발굴, 고병원성

AI 및 구제역 방역활동 등을 점검하고 시민과의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다각적인 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주문했다

특히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업기반시설 안전점검, 농업용수 공급,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과 편의제공 및 행락철 산불방지 사전제도·홍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사회적경제 일자리 발굴 총력

완주군, '소셜굿즈 TF사업단' 본격 활동

각 완주군이 사회적경제를 통한 사회적경제 조직(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에 총력을 기울인다.

완주군은 민선 7기 3대 비전 중 하나인 '모두가 바라는 일자리, 모바일 완주'의 성공적 달성을 위해 사회적경제가 핵심적인 역할을 해 주민의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참여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일자리를 발굴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 군은 정부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이 신속하게 대응, 완주형 사회적경제 혁신프로젝트인 '완주 소셜굿즈 2025 플랜' 비전을 선포, 민관합동 '소셜굿즈 TF사업단'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또한 전략적 실행을 위해 지난 1월 조직개편을 단행 기존 공동체활력과를 사회적경제과로 명칭변경하고, 소셜굿즈 전담팀을 신설했다.

그동안 사회적경제를 통한 지역활성화에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마을공동체, 도시공동체, 청년 정책도 더욱 강화된다. 기존에 다양하게 추진했던 각각의 정책들이 사회적경제 혁신프로젝트인 '소셜굿즈 2025'로 모아져 시너지효과를 내 대한민국 사회적경제 수도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군은 2019년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분야별로 ▲사회적경제 활성화생태계 조성 ▲사회적경제 조직(기업) 발굴·육성 ▲사회적경제 일자리창출사업 ▲사회적경제 교육사업(인력양성)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사회적경제 홍보 및

관료지원사업 등 7개 분야 57개 세부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고 나아가 사회적경제 조직(기업) 발굴육성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동아리, 공동체를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발전가능성이 있는 단체에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등 사회적경제 조직설립을 지원하고 돌봄, 청소, 주거, 환경 등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회서비스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이용해 제공함으로써 지역문제 해결과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또한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사업 및 소셜굿즈 청년혁신가 창업지원사업, 청년인턴지원사업, 신중년창업 The Creative Smart 사업 등을 통해 연내 100여개의 사회적경제분야 직접적인 일자리를 창출할 예정이다.

군은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나눔공간 및 공유장터 운영, 아파트 아이돌봄사업, 공공구매 활성화 등을 통한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 확산사업으로 사회적경제의 질적 성장과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설 계획이다.

강경석 사회적경제과장은 "이제는 사회적경제 개별 조직간 융·복합을 통한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김제시, 노후 불량 농촌주택 개량 사업 추진

4월 5일까지 신청 접수

김제시 건축과(과장 한일택)는 농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주택개량사업 추가 대상자를 오는 4월 5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아 추진 한다고 밝혔다.

주택개량사업을 당초 총사업비 60억으로 100동이 지원될 계획이었으며 추가로 21동 정도 신청 접수받아, 농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 농촌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로서, 주택기반시설 안전점검, 농업용수 공급, 농기계임대사업 등 농민들의 영농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지원과 편의제공 및 행락철 산불방지 사전제도·홍보,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 등을 지시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대상지역은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주거·상업·공업지역 외의 용도지역으로, 용적대상은 단독주택의 연면적 150㎡이하이면 취득세 감면 혜택 등이 있다. 대출금리는 고정 연 2%, 변동금리 중 사업대상자가 선택할 수 있고, 상환기간은 1년 거치 19년 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상환이다.

추가 사업신청 희망자는 읍면동에서 신청을 하면, 시에서는 실태조사를 거쳐 4월중으로 추가 대상자 선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제시관계자는 "노후하고 불량한 농촌주택을 적극적으로 개량하여 더욱 내실있는 농촌주거환경 개선과 도시민 농촌유치 및 농촌 활성화에 기여하는 건축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지구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에너지 절약 실천 방법

1. 사용하지 않는 전기제품은 플러그에서 뽑기
2. 전기세가 많이 나오는 제품 아껴쓰기
3. 겨울철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하고 내복 입기
4. 전기 사용량이 많은 시간대에는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 전주매일 에너지캠페인